



해리농협 우렁이 농법, 친환경농업 성공 모델 주목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이 2017년부터 도입한 우렁이 농법이 올해로 9년째를 맞으며, 지역 친환경농업의 성공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해리농협은 올해 총 253여 농가 약23ha 면적에 우렁이를 투입해 논에 잡초를 친환경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뒤에 한국수령원자력(주)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다. 한수원 영광원자력지역본부주는 2017년부터 매년 수천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해왔으며, 2025년 올해에도 1억9,500만원을 투입해 우렁이 종래 구입과 친환경 농자재 확보를 뒷 받쳤다. 해리농협은 이 지원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농법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김갑선 조합장은 지난 4월 농협중앙회로부터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다문화 봉사 열전' 성료

남원시는 2025년 4월부터 시작된 '다문화 봉사 열전'의 여정이 말뚝맞이 추어탕 나눔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시(군)지원 신규 자원봉사 공모사업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웃과 남원시 가족센터, 남원시 사랑의열매나눔봉사단, 개인봉사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첫 회기 4월에는 베트남 켈리와 한국 전통 강정으로 구성된 간식 100개를 손수 만들어 지역 아동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나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아이조아 축제서 소방체험 부수 운영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장수읍 누리파크 일원에서 개최된 제2회 장수읍 아이조아 축제에서 소방안전교육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주요 체험 내용은 △소화기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재난 입고 사진 찍기 등이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동규 장수소방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안전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협 장수군지부, 아이조아 축제서 쌀 소비촉진 등 행사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성수)는 최근 장수읍 누리파크에서 열린 '아이조아축제' 현장에서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숙자)와 함께 아침밥 먹기 인식개선 교육 및 쌀 소비촉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침 결식률이 높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쌀의 영양과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쌀 소비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의 필요성과 건강효과에 대한 교육, 쌀 퀴즈 이벤트, 우리쌀로 만든 도나스와 식혜 나눔 행사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노사화합 모범사례 높이 평가

전북대병원에 김영훈 장관·안호영 의원 방문... 현장 간담회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병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북대병원이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2년 연속 모범적인 입단협 합의를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뤄졌다. 이러한 전북대병원의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노사 모두의 목소리를 들으며 향후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전주고용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시측에서는 양종철 병원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자들이, 노측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비롯하여 전북대병원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했다.

사측 간담회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북대병원이 노사 간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2021년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같은 결단이 고용안정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사람도 고치고 사회도 고치는 노사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의정 갈등 속에서도 2년 연속 입단협을 원만히 마무리한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자 환자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의 성과"라며,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 주민과 환자 구성원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노측 간담회에서도 김영훈 장관은 "전북대병원이 노사 협의를 통해 실제 근로자 처우개선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특히 병원의 여러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지혜를 모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런 좋은 사례가 다른 현장에도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성주류화 확산 정책간담회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는 11일 전주시 여성가족팀과 함께 성주류화 확산과 여성가족 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전주시의 성주류화 정책의 제 발굴 및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주시 공무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 연구진들이 참여해 지역 내 여성가족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수립된 다양한 의견은 여성정책연구소의 운영 방향에 반영, 성인지 정책 개발 및 성주류화 제도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유은경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전주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전주시 성주류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와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수탁 운영 중이다.

/정은성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주세계소리축제에 1억원 후원금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지난 8일, 지역 대표 문화 예술행사인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이왕준)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이왕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김희선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전북본부에서 진행되었다.

김성훈 본부장은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북을 넘어 세계 속의 문화축제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왕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은 "소리축제의 가치에 공감하고 후원에 주신 전북농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후원을 바탕으로 더욱 풍성하고 내실 있는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국악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음악 축제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전주를 비롯한 전북 일원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진안군 동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밀반찬 나눔

진안군 동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이순/이하 지사협)는 11일 면 체육회 사무실에서 올해 세 번째 밀반찬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반찬만들기에 앞서 지사협 회원들은 정기회의를 갖고, 2/4분기 모금현황 및 사업보고, 3/4분기 요일급페드 지원사업, 일반전등 LED교체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논의와 상반기 사업예산 집행 세부내역 보고 등을 진행했다.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케어뱅크와 동향면 문화공간 담쟁이 지원으로 진행된 밀반찬 나눔 행사에는 회원들이 숙련된 손놀림으로 재료 손질부터 음식 제조까지 직접 수행하며 파리고추말치조림, 갈갈이멸무김치, 도라지진미채 등 밀반찬을 만들었다. 이후에는 위원들과 이장들의 협조를 통해 선정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2개 마을 80가구에 따뜻한 사랑을 담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지사협은 앞으로도 하반기 10월에 밀반찬을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대상자는 "요즘 입맛이 없어 밥을 잘 먹지 못했는데, 반찬을 보니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며 "우리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강희 변장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100명의 정기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 장학금 후원 캠페인 동참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부서장 김병태)은 최근, (재)부안군근로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1만원의 기적' 장학금 1군인 1후원회와 갖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부안군의 주요 정책과 행정 전반의 기획·조정,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 기능 등 부안 군정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병태 담당관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군농인재육성 장학금 정기 후원에 참여하는 등 부안군 교육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김병태 담당관은 "장학금 후원 등 여러 캠페인을 통해 장학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속발전가능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서 인재양성과 교육환경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남원시 도동사랑 청소년 봉사단 봉사활동 마무리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0여 명의 도동사랑 청소년 봉사단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와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 각 일자별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첫날에는 자원봉사 기본 교육을 통해 봉사의 가치와 실천 방법을 배우며 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둘째 날에는 거리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마을 주변을 정돈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5 무주교육장배 태권도 페스티벌 성료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은)은 최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2025. 무주교육장배 태권도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유·초등학생 1000여명이 참가했다. 품새, 격파, 겨루기 3종목으로 펼쳐졌으며 각 부문 참가자 전원에게 메달과 상장 및 트로피가 수여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버추얼 겨루기 종목이 선을 보였는데, VR헤드셋과 팔다리에 센서를 착용하고 가상 공간에서 승부를 겨루는 비접촉 경기방식으로 대회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천동농협,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행사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최근 사람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 원로조합원 및 취약계층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

폭염·폭우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폭염·폭우대비 건강기원을 담아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구천동농협 사람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 삼계탕 나눔행사를 하였고 지역 어르신께서는 "농협 직원분들이 매년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구천동농협은 정기적인 의료지원, 반찬봉사, 직업교육 등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